

인도네시아 인프라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7월 5주~8월 1주)

□ 정책 및 시장 동향

1. 프로젝트 정보

○ [인프라 제조업·데이터센터 확대로 산업단지 투자 확대 전망]^(Bisnis, 7/15)

- 인도네시아 산업단지협회(HKI) 회장 Akhmad Ma'ruf Muhammad은 제조업 투자와 데이터센터 개발 확대로 '26년 하반기 산업용지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부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산업단지 개발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
- 투자부에 따르면 '26년 투자실적은 281억불(Rp498.8tril)로 연간 목표 1,151억불(Rp2,042tril)의 24.4%를 달성했으며, 연내 870억불(Rp1,542tril) 규모의 추가 투자 유치 여력이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
- 산업단지 개발은 리아우 제도, Tanjung Pinang, 바탐, 동부자바, Gresik, Sidoarjo, 서부자바, 중부자바, Madura 등으로 확대될 전망. HKI는 제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법 제정을 촉구

○ [철도인프라 자카르타, JIS·Whoosh Halim 연결 LRT 신규 노선 추진]^(Bisnis, 7/14)

- 자카르타 주지사 Pramono Anung은 자카르타 LRT를 JIS(Jakarta International Stadium)와 Whoosh Halim역까지 연장하는 신규 노선을 추진한다고 발표. JIS 노선은 교통부 승인을 받았으며, 민관협력사업방식으로 민간 투자를 유치할 계획
- Dukuh Atas 연장 구간은 주정부 재원으로 추진되며, 추가 부지 확보 없이 '27년 초 착공해 '28년 개통을 목표로 함. 기존 Kelapa Gading-Manggarai 노선(6.5억불(Rp11.5tril), 12.2km·11개 역사)과 Dukuh Atas 연장 구간(1.2억불(Rp2.1tril), 약 2km)이 완공되면 자카르타 MRT와 KRL Commuter Line 간 환승체계도 구축될 전망

1)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715/47/1988159/arah-baru-investasi-kawasan-industri-di-tengah-ekspansi-manufaktur-dan-data-center>

2)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714/98/1987935/pemprov-dki-siapkan-2-rute-baru-lrt-jakarta-ke-jis-dan-whoosh-halim>

○ [인프라] Patimban 컨테이너 터미널 상업운전 개시³⁾(Nikkei, 7/15)

- Patimban 항만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이 상업운전을 개시, Tanjung Priok 항만의 물류 부담 분산 및 물류 인프라 확충에 나섬. 일본 정부는 '17년부터 약 Rp30.2tril(15.2억불)을 지원했으며, Africa Global Logistics(45%)와 Toyota Tsusho(35%)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운영을 맡음
- 컨테이너 처리능력은 '26년 말 연간 150만 TEU, '29년에는 375만 TEU⁴⁾까지 확대될 예정. 자동차 터미널 역시 연간 처리능력을 60만대로 늘려 Toyota, Honda, BYD, VinFast 등 서부자바 생산기지의 수출 물량을 충당할 계획
- 항만과 수도권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37km 유료도로는 '27년 말 완공을 목표, Patimban은 인도네시아 물류·자동차 수출 거점으로 육성될 예정

○ [인프라] 프라보워 대통령, Masela LNG 착공식 참석 예정⁵⁾(Bisnis, 7/16)

-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Bahlil Lahadalia는 프라보워 대통령이 Masela 광구 개발사업 착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힘. 다만 현장 참석 여부와 화상 방식 진행 여부는 미확정
- Abadi Masela LNG 프로젝트는 국가전략사업으로, 가스 생산 확대와 에너지 안보 강화를 목표로 추진 중, 동 착공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전환점으로 평가됨. Masela 광구는 '98년 Inpex가 운영권을 확보한 이후 개발 방식 변경 및 Shell의 사업 철수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었음
- 현재 Inpex Masela가 65%의 지분으로 사업을 운영 중, PT Pertamina Hulu Energi Masela(20%)와 Petronas Masela Sdn. Bhd.(15%)가 참여. 사업 완료 시 연간 950만톤의 LNG와 일일 1억 5,000만 표준입방피트의 파이프라인 가스, 일일 35,000배럴의 콘덴세이트⁶⁾를 생산할 예정

○ [인프라] 자바 북부해안 보호 위한 Giant Sea Wall 건설 추진⁷⁾(Bisnis, 7/18)

- 프라보워 대통령은 자바 북부 해안의 국가 경제거점 보호를 위해 Giant Sea Wall 건설 추진. 국가개발기획부는 자바 북부 경제권이 GDP의 27%를 차지

3) <https://asia.nikkei.com/business/transportation/indonesia-container-terminal-opens-with-japan-s-support>

4)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 : 20피트(약 6.1m) 길이의 표준 컨테이너 1개를 기준으로 한 컨테이너 물동량 단위

5)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716/44/1988465/prabowo-dijadwalkan-resmikan-groundbreaking-blk-masela-hari-ini>

6) 콘덴세이트 : 천연가스 채굴 시 부산물로 생산되는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

7)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718/45/1989033/meneropong-kelanjutan-konstruksi-giant-sea-wall-penyelamat-pantura-jawa>

하는 만큼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

- 기후변화 대응이 지연될 경우 319개 시·군이 기후위험에 노출되어 약 305억불(Rp544tril)의 경제적 손실 발생 전망. '29년에는 피해 규모가 약 1,122억불(Rp2,000tril)로 국가예산의 약 2/3 수준까지 확대 예상
- 인프라·지역개발조정부는 관계기관과 Giant Sea Wall 건설계획 협의 추진. 또한 자바 북부 해안의 지반침하가 연간 5~20cm에 달해 관련 사업 추진을 촉구

○ [인프라 스웨덴, Batam 전력투자 지원 및 전력공급 확대 협력⁸⁾(Batampos, 7/19)]

- 스웨덴 정부는 PT PLN Batam과 PT Dalle Energy Batam 간 전력구매계약 체결을 통해 Batam 복합화력발전소(PLTGU) 3·4호기(각 150MW) 개발 지원. 총 300MW의 전력 공급능력 확충과 함께 Siemens Energy의 SGT-800 가스터빈을 적용, 그린수소·그린암모니아 활용 기반 마련
- 추가 전력공급은 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 디지털경제 성장에 필요한 전력 안정성 확보 목적. PLN Batam은 발전·송전·배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 Batam을 산업투자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
- Daniel Blockert 주인도네시아 스웨덴 대사는 120MW 규모 Tanjung Uncang PLTGU와 Batam 1·2 PLTGU 사업 현장을 방문,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전환과 양국 협력 의지를 재확인

○ [인프라 PU, 수방 전기차 산업단지 유료도로 접근망 구축 추진⁹⁾(Bisnis, 7/22)]

- 인도네시아 정부는 서자바주 수방 전기차 산업단지를 국가 자동차 제조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 국영 방산업체 PT Pindad가 전기차·전기이륜차 산업단지 개발을 담당할 계획
- 공공사업부(PU) 장관 Dody Hanggodo는 Patimban Access Toll Road와 Cikampek-Palimanan Toll Road를 활용한 유료도로 접근망을 구축, 공급망과 물류 이동 효율을 제고할 방침. 아울러 해당 도로망을 산업단지뿐 아니라 국방·안보 기능과도 연계하는 방안 마련

8) <https://metropolis.batampos.co.id/swedia-perkuat-pasokan-listrik-untuk-investasi-strategis-di-batam/>

9)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722/45/1990199/putri-siapkan-akses-tol-untuk-kawasan-industri-mobil-nasional-di-subang>

- PT Pindad 사장 Sigit Puji Santosa는 국가 전략시설의 연결성 강화 및 물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통 인프라 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

○ [철도인프라] Bandung BRT 착공¹⁰⁾(Bisnis, 7/23)

- 인도네시아 정부는 73백만불(Rp1.3tril) 규모의 Bandung 광역권 간선급행버스(BRT) 구축사업에 착수. 교통부 장관 Dudy Purwagandhi는 동 사업이 인도네시아 대중교통사업 중 핵심이라 강조
- 동 사업은 Bandung, Cimahi, Bandung군, 서부 Bandung군, Sumedang군을 대상으로 전용차로 21km, BRT 정류장 34개, 직통노선 18개, 버스정류장 약 719개를 구축, 철도·지선버스와 연계한 통합 교통망을 조성할 계획
- 정부는 일 99,000명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와 승용차 이용객의 21% 전환 기대. 또한 통행시간 11% 단축, 고용 접근성 25% 향상, CO₂ 196천톤 감축 목표

○ [인프라] Patimban항 물류 생태계 구축, 핵심 과제로 부상¹¹⁾(Bisnis, 7/26)

- Patimban항은 완성차 수출 중심에서 국제 컨테이너 수출입까지 범위를 확대하며 연간 25만 TEU¹²⁾를 처리 중. 향후 80만 TEU, 장기적으로 750만 TEU까지 처리능력 확대 목표
- 또한, MSC¹³⁾ 국제항로 개설과 37km 진입 유료도로를 통해 서부 자바 산업단지 접근성을 높일 예정. 도로·철도 연계, 컨테이너 장치장, 정기항로 등 물류 생태계 구축은 핵심 과제로 지적
- 정부는 Patimban항을 Tanjung Priok항의 보완 거점으로 육성, 서부 자바 물동량 분산과 항만 혼잡 완화를 추진. 장기적인 성과는 물동량 확대와 연결성 제고, 시장 신뢰 확보 여부로 좌우될 전망

10)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715/47/1988217/lippo-hibah-30-ha-lahan-mekarta-menteri-atr-sertifikasi-hampir-rampung>

11)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726/98/1991100/patimban-mulai-dilirik-ekosistem-logistik-jadi-tantangan>

12)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 : 20피트 길이의 컨테이너 크기 단위, 항구 물동량의 기준

13) MSC(Mediterranean Shipping Company) : 글로벌 컨테이너 해상 운송 및 물류 기업

2. 주요 기업 · 기관 동향

○ [현지기관] Lippo, Meikarta 부지 30ha 이전 절차 마무리¹⁴⁾(Bisnis, 7/15)

- 농지공간기획부 · 국가토지청(ATR/BPN) 장관 Nusron Wahid은 PT Lippo Karawaci의 Meikarta 기부 부지 30ha의 자산 이전 및 토지권 이전 절차가 마무리 단계임을 밝힘. ATR/BPN 차원의 토지 행정 절차는 모두 완료됐으며, 현재는 PT Lippo Karawaci와 재무부 간 최종 협약 체결만 남은 상태
- 최종 서명 이후 재무부 명의로 토지 권리가 이전될 예정, 정부는 취득세 면제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것으로 예상
- Lippo Group 창업자 Mochtar Riady는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Meikarta 부지 30ha를 정부에 기부하기로 결정. 또한 부동산 산업은 174개 연관 산업을 견인하는 핵심 성장동력인 만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현지기업] Bakrie & Brothers, Danantara WTE 2차 참여¹⁵⁾(Emitenews, 7/21)

- PT Bakrie & Brothers는 자회사 PT Bakrie Power가 Mentari Citra Lestari 컨소시엄을 통해 수라바야 광역권 WTE 개발 · 운영 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발표. 다만 최종 계약은 관련 조달 절차와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 후 확정될 예정
- PT Bakrie Power는 PT Acritas Karya Persada 및 SUS Indonesia Holding Limited와 협력해 사업을 추진, 설계 · 조달 · 시공 사업자 선정과 국산 부품 사용비율 확보, 운영 · 유지관리, 투자 참여 및 지역 협력 업무를 담당. 투자 규모는 현재 Danantara 및 컨소시엄이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
- 향후 컨소시엄은 Danantara와 함께 기술, 사업성, 인허가 및 금융 조달 등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

14) <https://www.cnindonesia.com/ekonomi/2020/01/17/202-625-1375639/pertanira-pupuk-indonesia-sinergi-perkuat-ketahanan-energi-dan-pangan>

15) <https://emitenews.com/news/bakrie-brother-bnbr-buka-suara-soal-proyek-psel-danantara>

○ [국부펀드] Danantara, WTE 2차 사업 파트너 8곳 선정¹⁶⁾(Danantara, 7/21)

- PT Danantara Investment Management는 20일 WTE 2차 사업 대상 20개 시·군의 선정 사업자 8곳에 조건부 사업자 선정서를 전달. 7주 동안 7개국 85개 기업이 제출한 68건의 제안서를 평가했으며, 선정 컨소시엄 8곳 중 4곳은 인도네시아 기업이 주도
- 선정 사업자는 '26년 11월 중순까지 타당성조사 후 인허가와 부지 인계를 거쳐 '26년 12월~'27년 1월 착공을 목표로 준비. 요건 불충족 시 예비사업자로 대체 혹은 재입찰 실시 방침
- 동 사업은 PT Daya Energi Bersih Nusantara(Denera)와 공동으로 추진되며, 발리·브카시·광역 보고르 사업에 이어 전국 폐기물 처리 역량 강화와 투자 확대, 녹색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감축 계획

○ [현지기관] Pertamina, 탐사 확대 통해 에너지 생산 감소 대응¹⁷⁾(Indonesia Business Post, 7/27)

- 국영 석유·가스 개발사 PT Pertamina Hulu Energi(PHE)는 노후 유전 생산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탐사사업 확대 및 글로벌 에너지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 '23~'26년 인도네시아 8개, 말레이시아 1개 등 9개 탐사광구를 확보, 12건의 공동탐사조사를 추진해 신규 자원 발굴 기반을 확대할 계획
- PHE는 Petronas, BP, ENI, KUFPEC, SK Eathon, PetroChina, POSCO, TPAO, Woodside 등과 협력을 확대하였으며, Petroleum Management Malaysia와 기술 평가협약을 체결해 기술 이전과 탐사 역량 강화를 추진. S&P Global은 PHE가 '21~'25년 국가석유기업 가운데 9만km² 이상의 탐사권역을 추가 확보하며 가장 큰 증기폭을 기록했다고 평가
- PHE는 신규 탐사 성과를 상업 생산으로 연결해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프라보워 대통령의 에너지 자립 정책을 뒷받침할 계획. 다만 전략의 성패는 신규 탐사광구의 상업화 여부에 달려 있다고 분석

16) <https://www.danantaraindonesia.co.id/id/media-center/press-releases/dim-doa-batch-ii-wte-partners>

17) <https://indonesiabusinesspost.com/7006/energy-and-resources/pertamina-hulu-energy-bets-on-exploration-to-slow-indonesia-s-energy-decline>

○ [국내가관 동서발전 현지업체 컨소시엄 구성, 태양광 입찰 응찰 검토]^(Asiatoby, 7/28)

- 한국동서발전은 신수도 1단계 태양광·BESS 사업 참여를 검토 중. 현지 재생에너지 개발사 UPC Renewables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3개 사업지, 180MW 규모 사업권 확보를 추진, 총사업비는 약 1.7억불(Rp3.07tril)로, 동서발전은 약 20백만불(Rp362bil) 출자를 통한 사업법인 지분 51% 확보 및 PF 조달 구조를 검토
- 동서발전은 향후 인도네시아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대응, 해외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계획. 누산타라 1단계 입찰 참여 여부는 기준수익률검증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

3. 정부 정책동향

○ 사우디-인도네시아, 철도·항공 협력 확대^(Bisnis, 7/14)

- 교통부 장관 Dudy Purwagandhi는 사우디 교통물류부 장관 Saleh bin Nasser Al-Jasser와의 회담에서 교통안전·해사안전·철도안전 및 민간항공 기술협력을 위한 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 양국은 '88년 체결한 항공협정을 바탕으로 '25년 6월 항공회담에서 Yogyakarta와 Banda Aceh를 신규 운항지로 추가하는 데도 동의
- 양국은 사우디 항공사의 인도네시아 노선 확대와 인도네시아 항공사의 Jeddah·Madinah 정기편 증편을 추진하는 한편, 교통 분야 역량 강화, 인턴십 및 인도네시아 교통계열 교육기관 졸업생의 사우디 교통기업 취업 지원에도 협력 예정

○ 印 정부, 9개 주에 신규 위성도시 개발용 국유지 확보^(Bisnis, 7/15)

- 농지공간기획부·국가토지청(ATR/BPN)은 신규 위성도시 조성을 위해 9개 주에서 국유지 확보 작업을 마무리 중. ATR/BPN 장관 Nusron Wahid은 국가 주택정책의 주요 과제인 주택 부족 문제 해소, 지역별 신규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위성도시 개발을 추진
- 정부는 위성도시를 통해 도시 과밀 완화 및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계획. 대상

18) <https://indonesiabusinesspost.com/7006/energy-and-resources/pertamina-hulu-energy-bets-on-exploration-to-slow-indonesia-s-energy-decline>

19)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714/98/1987913/arab-saudi-ri-perluas-kerja-sama-perkeretaapian-hingga-penerbangan>

20)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715/47/1988207/pemerintah-siapkan-lahan-negara-di-9-provinsi-untuk-proyek-kota-satelit-baru>

지역은 북수마트라, 남수마트라, Lampung, Banten, 서부자바(Bogor · West Bandung), 중부자바(Batang), 동부자바(Mojokerto · Pasuruan), 서칼리만탄, 남술라웨시 등 9개 주이며, 남칼리만탄, 동칼리만탄, Nusa Tenggara Barat(NTB) 등 3개 주도 추가 후보지로 제안돼 현재 검토 및 검증 절차가 진행 중

- 또한 ATR/BPN은 개발 대상 부지가 기간 만료 후 연장되지 않은 민간 건축권 부지를 포함한 국유지임을 밝힘. 정부는 보다 엄격한 공간계획 정책을 통해 유휴 토지 재배분을 최적화하고, 이를 공공 인프라 개발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적극 활용할 방침

○ 印 국회, 국제금융센터 설립 법안 통과²¹⁾(Nikkei Asia, 7/21)

- 인도네시아 국회는 국제금융센터 설립 허용 법안을 통과, 외국인 투자 확대와 '29년 경제성장률 8%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동 법안에는 최대 50년 세제감면, 해외소득 비과세, 일부 부가가치세 면제 등 글로벌 금융허브 수준의 투자 인센티브를 포함
- 정부는 최초 국제금융센터 후보지로 발리 등을 검토 중, 최대 약 279억불(Rp500tril) 규모의 투자 유치 목표. 감독위원회와 전담 정부기구, 특별법원을 설치해 운영체계와 분쟁해결 절차 마련
- 정부는 동 제도를 통해 투자환경 개선과 투자재원을 다변화하는 한편, 인도네시아를 국제 자본 유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 제시

○ 印 에너지 전환, 정책 · 투자 과제 지속²²⁾(Bisnis, 7/23)

- 국영 전력사 PT PLN 산하 PLN 공과대학 총장 Iwa Ganiwa는 정책 일관성 부족과 투자 유인 미흡, 거버넌스 구조의 한계가 인니 에너지 전환의 주요 제약요인임을 지적. 또한 석탄 · 광업 종사자를 포함, 공정하고 포용적인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
- 정부는 '25~'34 전력공급사업계획을 통해 69.6GW 발전설비를 확충,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설비 76% 구축 목표. 산업계는 약 1,402억불(Rp2,500tril) 규모의 투자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탄소가격제 등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

21) <https://asia.nikkei.com/business/finance/indonesia-parliament-passes-bill-to-set-up-financial-centers>

22)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723/44/1990334/akselerasi-transisi-energi-ri-tersandera-masalah-klasik>

- PLN은 석탄 발전 유연성 제고와 계통 운영 개선, 데이터센터 등 신규 전력수요 확대를 추진, '6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 지원 계획

○ 인도네시아·노르웨이, 에너지·환경 협력 확대²³⁾(Antara, 7/26)

-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 Sugiono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ASEAN 외교장관회의 및 후속 장관회의를 계기로 노르웨이 외교부 장관 Espen Barth Eide와 회담, 환경·해양 양식·에너지 전환 분야 협력 확대를 논의. 양측은 지속 가능한 양식 기술과 선진 관리기법 도입을 통한 협력 강화에 공감
- 또한 양측은 에너지·비료 자립 지원을 위한 에너지 전환 협력과 함께 투자·혁신·기술개발 협력 확대를 모색. Sugiono 외교부 장관은 산림보전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위성영상 활용을 통한 산림 모니터링 및 천연자원 관리 협력도 제안
- Eide 외교부 장관은 인도네시아를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협력국으로 평가. 양측은 UN 체제 개혁과 다자주의 강화를 위한 공조도 지속할 계획

○ 英·印, 철도·에너지 인프라 협력 확대²⁴⁾(Investortrust, 7/29)

- 영국은 무역대표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Martin Kent의 자카르타 방문을 계기로 철도·청정에너지 분야 협력을 논의. 영국-인도네시아 철도협력포럼 '26에서 영국 기업 15개사와 인도네시아 철도사업 참여 방안을 협의
- 영국수출금융은 인도네시아 인프라 사업에 약 53.9억불(96.13tril IDR) 규모의 금융지원이 가능하다고 언급. 자카르타 MRT, Jabodebek LRT, 국영전력공사 PT PLN 송전망 현대화 및 초고압직류송전(HVDC) 기술 협력 및 국부펀드 Danantara 투자 확대 방안도 논의
- 인도네시아 철도총국 국장 Allan Tandiono는 영국의 금융 참여를 환영, 철도망 현대화와 10개 대도시권 철도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확대 의지를 강조

○ 印, 러시아산 원유 도입 확대 통해 에너지 안보 강화 추진²⁵⁾(Antara, 7/28)

-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장관 Bahlil Lahadalia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23) <https://en.antaranews.com/news/424088/indonesia-norway-deepen-cooperation-on-energy-and-environment>

24) <https://investortrust.id/business/111040/inggris-siapkan-pembiayaan-rp-96-128-triliun-untuk-infrastruktur-indonesia>

25) <https://investortrust.id/business/111040/inggris-siapkan-pembiayaan-rp-96-128-triliun-untuk-infrastruktur-indonesia>

정부 간 협력 방식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도입 중, 국내 원유 비축 확대와 수급 안정을 위해 협력을 지속할 계획

- 인도네시아 정부는 '26년 제정한 원유·석유제품·LPG 조달 관련 대통령령을 근거로 1.5억 배럴 규모의 러시아산 원유 도입을 추진, ESDM 산하 기관인 Lemigas를 통해 관련 절차를 수행. 동 대통령령은 국영 석유·가스기업 PT Pertamina의 긴급 수입을 허용, ESDM Bahlil 장관에게 에너지 비상상황 선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

4. 녹색산업 동향

○ NTB주, 태양광 발전 잠재량 10GW에 달해²⁶⁾(Bisnis, 7/14)

- Nusa Tenggara Barat(NTB) 주지사 Lalu Muhamad Iqbal은 Lombok과 Sumbawa를 중심으로 NTB의 태양광 발전 잠재량이 최대 10GW에 달한다고 소개. Pringgabaya, Selong, Sengkol, Sambelia에서 각각 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운영 중이며, Gili Trawangan, Gili Meno, Gili Air에서도 소규모 사업을 추진 중
- 정부는 발리, Nusa Tenggara Timur(NTT)와 함께 100GW 규모의 태양광 발전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NTB는 약 10GW를 담당할 예정. 기존 발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력망 연계와 발전설비 확충도 추진
- 에너지경제개혁연구소 Fabby Tuniwa 사무총장은 지역별 특성에 맞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 NTT는 369GWp 규모의 태양광 잠재량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허브, Bali는 저탄소 관광지, NTB는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 산업 거점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

○ 印, 수소 프로젝트 93건으로 청정에너지 전환 본격화²⁷⁾(RRI, 7/22)

-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국에서 수소 프로젝트 93건 및 약 18억불(Rp32tril) 규모의 투자 유치를 추진. 에너지광물자원부(ESDM)는 동 사업이 탈디젤화²⁸⁾ 정책의 핵심 과제라고 설명

26) <https://en.antaranews.com/news/424321/indonesia-imports-russian-oil-to-bolster-energy-security-bahlil>

27) <https://rri.co.id/en/business/2587848/indonesia-prepares-93-hydrogen-projects-to-boost-clean-energy>

28) 탈디젤화 :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디젤(경유) 차량과 건설기계의 생산 및 운영을 축소하는 정책 및 산업적 변화

- Nusa Tenggara Timur 주 Sumba 프로젝트는 '28년 가동을 목표로 하며, PT PLN²⁹⁾과는 Seribu Islands Rengit 섬에서 태양광·수소 에너지 저장 시스템 구축을 추진. 정부는 수소 활용 확대를 통해 에너지 안보지수를 10점 만점 기준 7점에서 8점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
- 정부는 국영버스 운영사 DAMRI의 수소-디젤 혼합연료 시범 버스를 공개, 수소 기반 교통 생태계 조성 및 수소차 상용화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

○ PLN 연간 수소 생산량 200톤, TransJakarta 수소버스 도입 검토³⁰⁾(Antara, 7/22)

- PLN의 Darmawan Prasodjo 사장은 발전소에서 연간 200톤의 수소를 생산, 냉각설비에 75톤만 사용하여 125톤의 활용 가능 물량이 있다고 설명. 이에 수소충전소 구축을 확대할 계획
- Darmawan 사장은 Bahlil Lahadalia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에게 Pramono Anung 자카르타 특별주지사와 협의해 TransJakarta 버스의 수소연료 도입 검토를 요청. 일본·독일·중국 완성차 업체와 수소버스 공급 방안을 논의 중
- PLN은 정부의 수소버스 도입 결정 시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가스기업 Pertamina와 협력해 수소 공급과 운행 기반을 구축할 방침

○ PLN, WTE 장기 전력구매계약 추진³¹⁾(Infobank, 7/22)

- 국영 전력사 PT PLN은 WTE 활성화 목적으로 30년 장기 전력구매계약을 추진, 동 계약을 기반으로 국내외 투자 유치 확대를 기대. PLN 프로젝트관리·신재생에너지 담당 이사 Suroso Isandar는 PLN이 전력 구매자 역할을 맡아 장기 계약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
- 식량조정부 장관 Zulkifli Hasan은 투자 자해 규제 완화로 사업 절차 간소화, 도시 폐기물 처리와 투자환경 개선을 추진 중이라 밝힘. Danantara CIO Pandu Sjahrir는 WTE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투자자의 관심이 확대 중임을 언급

29) PLN(Perusahaan Listrik Negara) : 인도네시아 전력공사

30) <https://bali.antaranews.com/amp/berita/410068/pln-indonesia-surplus-hidrogen-sebesar-125-ton-per-tahun>

31) <https://infobanknews.com/proyek-psel-jadi-rebutan-investor-pln-siapkan-skema-ppa-jangka-panjang>

○ 필리핀, 인도네시아 전력망 연계 검토³²⁾(Kompas, 7/24)

- 필리핀 정부는 ASEAN 전력망 구상에 따라 인도네시아와의 국가 간 전력망 연계를 모색. 전력 공급 안정성 제고와 전기요금 부담 완화,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기대
- 동 사업은 칼리만탄-사바-민다나오³³⁾를 초고압직류송전³⁴⁾ 해저케이블로 연결, 북칼리만탄 및 사라왁 수력발전 전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 양국은 전력거래, 규제, 기술기준, 요금체계 및 투자위험 등을 포함한 타당성 조사를 우선 추진할 예정
- 다만 해저 지형, 지진·화산 위험, HVDC 기자재 및 특수 선박 부족, 대규모 투자 부담 등은 주요 과제로 지적. 사업 기간은 10년 이내로 전망

○ PGEO, Mizuho Indonesia로부터 75백만불 여신한도 확보³⁵⁾(IDN financials, 7/28)

- 국영 지열발전사 PT Pertamina Geothermal Energy(PGEO)는 PT Bank Mizuho Indonesia와 최대 75백만불(1.36tril IDR) 규모의 여신한도를 확보, 운영자금과 지열발전 사업개발을 지원하고 장기 협력 기반을 마련할 계획
- PGEO 재무이사 Fransetya Hutabara는 동 여신한도가 담보 없이 제공된 것으로, 회사의 신용도와 위험관리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 여신한도는 지급보증, 신용장, 매입채무 금융, 회전한도대출 등으로 구성
- Bank Mizuho Indonesia 마케팅이사 Heru Gautama Harman은 청정에너지 개발 지원과 양사 장기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힘. PGEO는 자체 운영 발전설비용량을 '28년 1GW, '34년 1.8GW까지 확대해 지열발전 확대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할 계획

32) <https://www.kompas.com/global/read/2026/07/24/174000070/filipina-ingin-tersambung-ke-jaringan-listrik-indonesia-amankan-pasokan?page=all>

33) 민다나오(Mindanao) :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큰 섬. 국토 남부 1/3 부분을 차지함.

34) 초고압직류송전(HVDC) :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직류 형태로 바꿔 송전하고, 수신 지점에서는 다시 교류로 바꿔 공급하는 전력 전송 시스템

35) <https://www.idnfinancials.com/news/66664/pgео-secures-usd-75-million-facility-from-bank-mizuho-indonesia>

○ 신수도 관련 현지 언론보도 종합

- 中 기업, IKN 핵심구역에 70백만불 규모 복합단지 조성³⁶⁾(Niaga, 7/16)

- 중국계 외국인투자기업 PT Star Bright International Investment가 신수도(IKN) 핵심정부구역내 세부 개발구역(Sub-WP 1B)에서 70백만불(Rp1.25tril) 규모 복합단지 건설에 착수. 동 사업은 외국인 투자자가 IKN에서 처음 추진하는 건설사업으로, '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15,501m² 부지에 아파트와 식당,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을 조성
- 신수도청장 Basuki Hadimuljono는 사업 부지가 Nusantara 행정 중심에 위치한 핵심 입지라 설명. PT Star Bright International Investment는 중국 Zhongda Jiancheng Engineering Management Group과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 동칼리만탄 지역 건설업체도 공사에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OIKN, 신수도 2단계 개발 가속화³⁷⁾(Bisnis, 7/19)

- 신수도청(OIKN)은 '28년 정치수도 이전을 목표로 신수도 2단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힘. 이를 위해 민간 투자자와 관계 부처, 시공사 등과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 중
- OIKN 청장 Basuki Hadimuljono는 신수도 개발이 국가예산, 민관협력, 민간투자 등 3개 재원으로 추진 중임을 설명. 국가예산 사업은 OIKN(40건), 공공사업부(PU · 90여건), 주택정주부(PKP · 12건)가 분담해 추진
- 민간투자 부문에서는 67개 기업이 협력 계약을 체결했으며 9개 사업이 완료, 6개 사업이 공사 중. 민관협력 방식은 주택 7건과 도로 6건 등 총 13개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Basuki 청장은 안전관리와 시공 품질 확보를 당부

- OIKN, 신수도 입법 · 사법지구 '27년 말 완공 추진³⁸⁾(Bisnis, 7/19)

- 신수도청(OIKN)은 '28년 정치수도 이전에 맞추어 신수도 입법 · 사법지구를 '27년 말까지 완공 목표. OIKN 청장 Basuki Hadimuljono는 현재 공정률이

36) <https://www.niaga.asia/pma-asal-china-bangun-kawasan-terpadu-rp125-triliun-di-kawasan-inti-ikn/>

37)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719/45/1989155/otorita-kebut-pembangunan-proyek-ikn-tahap-ii-begini-progresnya>

38)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719/45/1989155/otorita-kebut-pembangunan-proyek-ikn-tahap-ii-begini-progresnya>

15%이며, 공사 가속화 중이라 밝힘

- OIKN은 현재 40건 개발 작업을 추진 중, 9건은 완료, 15건은 공사 중, 16건은 입찰 준비 단계. 또한 올해 저수지 등 수자원 기반시설 일부가 준공될 예정
- 또한 OIKN은 3차 인프라 개발을 위해 약 1.5억불(Rp2.7tril)의 추가 예산 필요성을 언급. 동 예산은 다년도 계약 사업, 자산 관리, 토지 매입에 활용될 계획, '26년 상반기 예산 집행률은 80.2%(약 2.5억불(Rp4.38tril))/(약 3.1억불(Rp5.47tril))를 기록

- 中·韓 기업, 印 신수도 투자 확대³⁹⁾(QEC Indonesia, 7/16)

- 중국 및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신수도 투자가 잇따라 추진 중. Basuki 신수도청장은 한국계 PT Dian Jaya Indonesia가 부동산 분야, 특히 업무시설 개발에 약 67백만불(Rp1.2tril)투자 예정임을 밝힘
- 앞서 중국계 외국인 투자기업 PT Star Bright International Investment는 신수도 핵심정부센터 Sub-WP 1B 구역에서 약 70백만불(Rp1.25tril) 규모의 첫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착공. 동 프로젝트는 15,501m² 부지에 아파트·상업시설·업무시설 조성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2026년 말 준공 목표

39) <https://www.cnbcindonesia.com/news/20260716145840-4-751361/investor-kakap-china-dan-korea-serbu-ikn-berlomba-lomba-bangun-ini>

□ 중점 프로젝트 동향

① BSD신도시 주거단지

< 사업 개요 >

- (협력사) 시나르마스 랜드 (Sinarmas Land, SML)
- (참여기업) 대우건설, 대한주택협회 회원사 JV
- (사업비) 약 9,658억원
- (사업내용) 46.6ha에 한국테마 적용 주거단지 (빌라 955, 샵하우스 387) 건설, 분양
- (추진현황) 대우건설-SML MOU 체결('24.9.2), 1차(~'25.8) 및 2차 연장(~'26.2.15) - 토지가 협상, 자체 FS 완 - FS 완료, 주주간협약 문구 협의중
- ('26년 센터목표) 투자 의결 ('26.9월 예상)

○ (주요동향) 대우건설-SML, SHA 문구협의 계속

② 칼리만탄 지속가능 우드펠릿 공급망 구축

< 사업 개요 >

- (원개발사) Innovative Energy Solution (IES)
- (참여기업) 남동발전 (주주 및 Offtaker) 등
- (사업비) 미정
- (사업내용) 연60만톤 우드펠릿 생산설비 건설·운영, 남동발전 등에 장기 공급
- (추진현황) 조림지 토지용도 허가 취득 ('23.5) - 원개발사 IES (싱가포르) 설립 ('24.10) - 인니 자회사 설립 ('25.1) - KIND 사전검토위 통과 (사업개발비 및 MOU 체결 승인) ('26.3)
- ('26년 센터목표) 본FS 지원 및 실사 / 결과에 따라 투자심의 부의

○ (주요동향) 대아이앤씨, KIND 자금지원 FS 평가결과 대기중

③ 수방 전기차 특화 산업단지

< 사업 개요 >

- (협 력 사) 아르고 마농갈 (Argo Manunggal, 마루베니와 산단 성공적개발사례 보유)
- (참여기업) Gaya (GS건설 싱가포르법인), Beijing Liando (중국계 디벨로퍼)
- (사 업 비) 612백만불 (1, 2단계 921ha 기준)
- (사업내용) 수방 지역* AMG가 원소유주와 독점 가계약중인 1,694헥타르 부지에 전기차 제조업 특화 산업단지를 총 4단계에 걸쳐 조성, 분양 통해 Exit
- (추진현황) `25.2 AMG-Gaya 전반적 협력 MOU 체결 - `25.10월 GS 사전사업심의 통과, DD비용 승인 - `25.12 정부에 의한 사업순연 - GS 자체 DD 진행중
- ('26년 센터목표) DD 완료 및 투자 의결 (4분기)

○ (주요동향) GS 발주 DD 업데이트 모니터링

④ 까얀1 수력발전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인니전력공사(PLN)
- (참 여 사) 원개발사(KHE), 삼성물산, 수자원공사(예정), 스미토모상사(미정) 등
- (사 업 비) 약 27억불 (EPC 약 15억불)
- (사업내용) 900MW 수력발전 댐 건설후 30년간 운영, 전력판매 수익창출
- (추진현황) 원개발사 제반 인허가 취득 (~`20) - 중기전력계획(RUPTL) 동사업 포함 (`25.5) - 삼성물산-KHE JV DPT 등록 (`25.12) - `26.3 KIND FS 신청
- ('26년 센터목표) FS 지원대상 선정 (完) / FS 수행

○ (주요동향) KIND 컨설팅 FS 용역 계속

⑤ 자카르타 데이터센터 (투자의결 完)

< 사업 개요 >

- (사업주) SM플러스 (시나르마스그룹 계열사) - 한투그룹, KIND, S펀드 출자 싱가포르 SPC
- (참여기업) LG CNS (현지법인 통해 장비공급·설치, 운영, 직접사용 및 재판매)
- (사업비) 2.9억불
- (사업내용) 자카르타 시내 수전 30MW, IT Load 18MW 데이터센터 건설, 운영, 매각
- (추진현황) 본사 투자의결('25.9.15) / 골조준공식 개최('26.6) / 수요가 협상중
- ('26년 센터목표) 준공 및 운영준비 완료 / 후속안건 발굴

○ (주요동향) 수요가 협상 마무리 단계

② 협력센터 운영 보고

○ 주요기업, 기관 면담 ('26.7월 5주~8월 1주차)

- 네트워킹 10건 : 국토관 · 현대차그룹, OECD 인도네시아, KIND, KIND · LG-Sinarmas, KIND · 수출입은행, Muns · 대웅제약 · 성창, 시나르마스랜드, 디웍스컨설팅, BK글로벌, 대우건설
- 사업개발 13건 : LG CNS, 코린도그룹, PT IGS, 시나르마스랜드, 코린도그룹 · 다올자산운용, KIND · 주택부 · 주택공사, KIND · 코린도그룹, KIND, PT GTI, 롯데건설 · 코린도건설, 수출입은행, Ace Energy, 삼성물산 · 철도공단 · 유신
- 대관업무 2건 : 국토관 · 아세안국토관 · 수출입은행 · 수자원공사 · 철도공단, 주택공사 신규프로젝트 착공행사